

한국수자원학회의 미래를 위한 제언



서일원

서울대학교 교수
seoilwon@snu.ac.kr

금년(2017년 11월 20일)에 한국수자원학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67년 수문협회로 창립하여 50년의 성상을 거치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수자원 분야를 책임지는 대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창립 후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선진 학회로 굳건히 자리 매김한 데에는 설립 당시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들과 도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역대 회장단과 회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학회는 이러한 선배 회원님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50년을 위해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50년간 훌륭한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었습니다만, 주지하다시피 디지털 사회와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대변되는 미래의 50년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본고에서 우리 학회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그 동안 국가에 대한 정책 제언, 정부

의 법률 제정, 각종 제도 및 계획 수립, 수공학의 학술적 지식 창출 및 신기술 개발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으며, 미래에도 수자원 분야의 신기술을 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쌓아 온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동안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학회 회원의 확충 및 참여, 학회 재정의 건전화, 학회 운영시스템의 선진화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학회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우리 학회는 2015년에 중장기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학회의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마침 중장기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위원들과 함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글은 향후 우리 학회가 60주년을 맞이한 2027년에 우리 학회의 회원인 한국수(가명; 나이 30대) 회원과 한자원(가명; 나이 40대) 회원, 그리고 한학회(가명; 나이 50대) 회원의 학회 활동을 이야기 식으로 풀어써 쓴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학회 회원에 대한 참여와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수회원은 내일 개최되는 한국수자원학회 60

주년 기념식에서 간단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학회 회원에 가입한 지 10년째이며,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KWRA-water(가칭)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학회의 Webinar를 통하여 네덜란드 델타레스의 해안수리학 전문가가 강연하는 조력발전에 관한 특강을 수강하고 이를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에 관한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그는 우리 학회가 제공하고 있는 STEM 프로그램, e-learning, Webinar 등을 통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교육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 한국수회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학회가 50주년을 맞이한 해인 2017년에 중장기발전위원회가 수립한 다음의 발전계획(회원부문)을 받아 들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

▶ 회원 관리 및 지원 사업에 학회 예산의 50% 이상을 투입하여 회비를 내는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지원을 대폭 확충하여야 함.

- 이유: 2017년 현재 학회의 회원수가 5,400명이 넘지만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회원은 전체 회원의 55% 정도밖에 안되고, 신입회원으로 가입한 후 계속해서 회비를 내는 회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학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일반 회원 또는 총회의 의견 수렴 및 의결을 거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 이유: 학회의 집행부 및 상설위원회에 참여하는 소수의 회원들이 학회의 모든 의사 결정과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일반회원의 참여는 위축되고 있음.

▶ 학회 활동에 대한 회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학술대회 등 학회 행사에 일반회원이 참여하는 장을 넓히는 등 오프라인 참여뿐만 아니라 온라인 참여를 대폭 확충해야 함.

- 이유: 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수 및 등록자수가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공학위

크숍의 참석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신진 및 중견 회원지원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학생 및 신진회원에 대한 STEM 프로그램, 중견회원계발 프로그램, e-learning, Webinar 등을 새롭게 만들어서 회원에 대한 경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확충해야 함.

- 이유: 우리 학회의 학생회원 등 20-30대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비해 50대 이상의 회원수는 증가하고 있어서 미래를 책임질 후속 세대의 지속적 유입 및 양성이 필요함.

▶ 우리 학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 학회 여성위원회와 지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업하여 같이 발전하는 학회가 되어야 함.

- 이유: 현재 10%에 불과한 여성회원수를 대폭 늘리고 여성회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함. 또한 대구·경북 지회 등 7개 지회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두 번째는 학회 학술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자원회원은 내일 한국수자원학회 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강연을 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학회에 입회한 지 15년차인 중견회원으로서 KWRA 대학(가칭)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가 대학원생과 함께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물-에너지 융합형 수차발전기가 KWRA press(가칭)를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학계에 발표됨에 따라서 대만 정부가 제정한 세계적인 기술상인 “Tang Prize in Sustainable Development”을 수상(2018년 상금: US\$ 1,36 million) 한 것을 기념하여 우리 학회 60주년 기념식에서 특별강연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40대 초반인 한자원회원으로서는 매우 뜻깊은 일로서 학회의 연구비 지원,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 및 기술의 번역 등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자원회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학회가 50주년을 맞이한 해에 중장기발전위원

회가 수립한 다음의 발전계획(학술부문)을 받아 들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

▶ 우리 학회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해 학술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개혁과 투자가 필요함. 특히 국문 논문집과 영문논문집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이 둘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함.

- 이유: 근년에 국문논문집의 투고 논문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고, 영문논문집(JHER)에 발표되는 우리 학회 회원의 논문 수와 질이 국제 학계를 선도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과 기술 및 정책의 수준을 현격하게 높여서 우리 회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융합과 창조 의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이유: 학술발표회에 발표되는 논문의 양과 질이 담보 상태에 있으며, 학술 지식의 창출 측면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대응, 정보화 및 4차 산업혁명,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등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우리 학회의 뚜렷한 비전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 우리 학회의 출판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KWRA Press를 통해 학술활동에서 창출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을 출판해야 함. 특히 KWRA Press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알리므로써 우리의 기술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이유: 학회의 출판사업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전파가 미흡하고, 학회의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 또한 매우 미미함.

▶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고 학술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국제적인 학술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함.

- 이유: 현재 미국수자원학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9개국 및 국제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부족함.

세 번째는 학회의 정부 정책 제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학회회원은 내일 한국수자원학회 60주년 기념식에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50대 초반인 그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체인 KWRA-Engineering(가칭)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학회에 입회한 지 25년차로서 작년부터 학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스마트시티 개발 및 운영에 관해 최근에 정부가 개정하여 발표한 도시하천법(가칭)에 대하여 기조강연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 학회는 국회 입법으로 추진한 도시하천법 제정에 KWRA Opinion(가칭), 정책백서 등을 통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입법 후에도 필요한 규정 및 설계 기준 등을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학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학회가 50주년을 맞이한 해에 중장기발전위원회가 수립한 다음의 발전계획(정책부문)을 받아 들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

▶ 우리 학회가 사회와 국가로부터 중대한 역할을 인정받으려면 국가 정책 수립과 수자원 기술의 표준화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특히 정부의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지침서 등을 제·개정하여 수자원 기술의 확립 및 표준화를 주도하여야 함.

- 이유: 정부의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의 업무가 국가건설기준센터로 이관되어 우리 학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책에 대한 회원 참여를 극대화시켜야 함.

- 이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래수자원포럼, 하천관리포럼, 도시침수포럼 등의 정책 포럼에 일반 회원 참여가 미흡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추진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물관리 일원화, 하천 관리 등 수자원정책 현안에 대한 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제안하여야 함. 정책 제안을 KWRA Opinion 등 정기 간행물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리고 나아가서 정책 백서(white paper)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여 국가의 정책 수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이유: 우리 학회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가와 정부에 주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건설적인 비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학회가 지금부터 추진해

야 할 개혁과 변화는 향후 우리 수자원 분야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물론이고 우리 학회 회원 모두의 직업과 삶에 있어서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5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혁과 변화를 받아 들여서 회원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학회가 되고 나아가서 수공학 지식 및 기술의 창달, 국가 정책의 수립 등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학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